

인테나

인천시 첫 모내기... '조생종 진옥벼' 심어

인천시는 지난 5일 서구 대곡동에 박길수·김용욱씨 농가에서 1.6ha 면적에 조생종 진옥벼를 심었다.

이날 모내기한 '진옥벼'는 고품질 품종의 쌀로써 내병성과 도열병 저항성이 강한 조생종 품종이다.

또한 수량성이 양호하고 식미가 좋다는 평을 받고 있는 품종으로 8월 말 8.8톤 가량의 쌀이 수확될 예정이다.

조기재배를 하면 9월 이후 오는 태풍 등 기상재해를 피할 수 있어 수확기 피해 부담이 적고 추석 전 조기수확으로 햅쌀 시장을 선점하기 유리해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해당 농가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인 축조시비기 기술시범사업 적용 농가로서 시범 기술의 적용을 통해 시비 노동력 79% 비료 이용률 20%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인천시는 이 외에도 원적외선 건조저장 시범, 드론 활용 벼 생력화 시범사업 등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도 선진기술 보급에 힘써 영농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인천시 '통합 시험양식사업 보고회' 개최



인천시는 9일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인천시 수산과와 수산자원연구소·서해수산연구소·용진군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통합 시험양식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수산기술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용진군 대청면 면허어장에서 통합 시험양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보고회에서 관계기관에 통합 시험양식사업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통합은 우리가 흔히 통합이라고 알고 있는 진주 담치보다 약 5배 크기까지 성장이 가능하며 참담치라고도 불리는 데육질이 두껍고 단단해 요리 재료로 사용할 경우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고 영양물질도 풍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종삼 기자

인천사서원 "무료 노무 상담 받아보세요"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기관종사자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상시 무료 노무 상담을 지원한다.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 휴가사용·근로계약서 작성·임금·각종수당·퇴직금·직장내 괴롭힘 등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을 상담한다. 근무 장소·시간 등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올해부터 대상자를 시설장으로 확대했다. 역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안내해 시설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노무 관련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센터는 또 '장기요양기관 현장 맞춤 노무가이드북'을 만들어 관련 기관과 시설에 배포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내 설치한 시설로 노무 상담은 물론이고 역량 강화 교육, 처우 개선 활동 등을 맡고 있다.

최윤형 인천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센터장은 "우리 노무 상담 창구를 찾아오는 종사자와 시설장 모두 좀 더 수월하게 갈등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남동구 간석2동, 경로당에 후원 물품 전달



남동구 간석2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내 경로당 4곳에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경로당 후원은 주민자치회와 통장자율회 등 7개 자생 단체가 참여해 빵과 음료, 과일 등의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간석2동 자생 단체들은 그동안 '1년 1도' 결연사업을 통해 청소는 물론 간식 등의 물품을 지원해 왔다.

한 경로당 회장은 "코로나19로 외롭고 소외된 어르신들이 더 힘든 시기를 지나왔는데, 경로당도 개관하고 어버이날을 맞아 여러 단체가 찾아와 위로해 주니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근식 기자

환경특별시 인천, 연안 앞바다에서도 구현

인천시, 소야도 연안 정화 주민들도 적극 동참 나서

'환경특별시'구현을 위한 인천시의 노력은 인천 앞바다에서도 계속됐다.

인천시는 11일 용진군 소야도 해안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했다.

소야도는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1시간이면 도착하는 덕적도와 2018년 덕적소야교로 연결돼 24시간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이번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은 차량 접근이 어려운 해안가의 관리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해양환경정화선(인천SeaClean호) 승무원들 외에도 해양항공국, 용진군 덕적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만공사 직원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했다.

수거지역은 차량접근이 불가한 소야도 레이터 기지 근처로 수거인원은 1시간가량 도보로 이동해 수거작업을 진행했으며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인천SeaClean호 승무원들이 1박2일 동안 수작업으로 옮겨 실은 후 처리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11일 용진군 소야도 해안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했다.

(사진=인천시)

수거작업 참여자들은 해양쓰레기 수거에는 보다 전문적인 인력과 노고가 필요하며, 육상에서 버린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했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 앞바다는 우리 모두가 깨끗하게 보전하고 관리해야 할 공유재"라면서 "유·무인도서 등 해양

쓰레기 사각지대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 활동을 실시해 '환경특별시 인천을 인천 앞바다에서도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어린이 편식 개선 '컬러푸드 영양교육' 진행

미추홀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영양교육 지원으로 편식 개선

미추홀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다음달 30일까지 영유아 채소 편식 개선을 위한 '컬러푸드 영양교육'을 어린이집·유치원 203개소 대상으로 실시한다.

'컬러푸드 영양교육'은 영유아가 편식하는

채소를 친숙하게 느끼도록 알록달록한 채소를 소개하고 색상에 따른 효능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론 교육과 컬러푸드를 주제로 한 만들기·색칠놀이 활동으로 아이들이 채소에 호기심을 갖고 골고루 먹는 식습관을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또 컬러푸드 먹기 사진 이벤트, 그림그리기 공모전, 매월 제공되는 식단과 연계한

'무지개 밥상 골고루 먹기 캠페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해 꾸준한 관심과 참여로 아이들 편식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정 센터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린이의 식생활 교육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방문 교육이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아이들이 채소에 흥미를 느끼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 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센터는 지난 2011년 인천 최초로 미추홀구청으로부터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장 및 센터장·교사·조리원·부모·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위생·안전·영양교육 및 순회방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의정자료 유통시스템 구축' 완료

인천시의회, 의정자료로 활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오는 16일부터 서비스 개시

인천시의회가 의정환온네트워크 구축 1단계 사업인 '의정자료 유통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1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의정자료 유통시스템'은 의회가 인천시청·인천시교육청 등 집행부로부터 제공받는 의원 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업무보고 자료 등 모든 의정자료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의정자료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시의

원이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축적된 전자파일 형태의 각종 의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시의회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비대면 업무체제도 갖춰질 전망이다.

이번 의정자료 유통시스템은 지난달 28일 사업 완료 후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신은호 의장은 "의정자료 유통시스템 구축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스마트한 의정활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의정포털 시스템(2단계) 및 의안처리 시스템(3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종이 없는 스마트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인천시의회가 의정환온네트워크 구축 '단계 사업인' 의정자료 유통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사진=인천시의회)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날 오후 의정실에서 신은호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자료 유통시스템 사업 추진결과 보고 프로그램 주요 화면 시연 등의 행사를 가졌다.

안종삼 기자

인하대 병원에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

중앙지방고용노동청 및 2곳 고대안산병원 등 24곳 병원과 업무협약... 모니터링 등 수행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12일 오후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진료 단계에서 직업성 질병을 발견해 추가피해를 예방하는 등 현행 산업보건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 자문기구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부(인천·경기·강원)·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6개 권역에 설치해 운영한다.

이 중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는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고려대안산병원 등 24개소의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

고 직업환경의학과·응급의학과와 호흡기내과·신경과·피부과 등 주요 직업병 관련 과목 및 암센터까지 포함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천·경기·강원지역의 직업병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다.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는 먼저 병원 진료과 또는 응급실에 방문하게 되므로 초기 진단 단계에서 의사들이 질병과 직업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면 직업환경전문인에게 연계하게 된다.

연계받은 전문의들은 환자의 상태와 직업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유사한 질병이 확산 가능성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등과 협업하여 사업장 조사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정한 24개 직업성 질병에 걸린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업성 질병 재해 조사 시 의학적 자문을 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안종삼 기자

레지오넬라균 검사 선제적 추진

인천시, 코로나19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선제 검사 실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가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냉·온수 급수 시설 및 목욕탕·수영장 등에서 증식하는 레지오넬라균이 비말 형태로 호흡기를 감염시켜 발생하는 '레지오넬라증'은 특히 온도가 높고 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하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면 더욱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다.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이달부터 7월에 특히 기온이 상승하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예년에 비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많아 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위생관리에 특별한 주의

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원은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280개소를 대상으로 예년보다 한 달 빠른 5월부터 급수시설 및 냉각탑수의 레지오넬라균 증식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해 인천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1365건의 검사 중 102건(검출률 7.5%)에서 균이 검출됐고 19명(전국 39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우선순위에 따른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과 더불어 코로나 일시휴업시설, 작년 레지오넬라균 환자 발생 시설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할 예정이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어려게 맞이한 안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우선적으로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시민의 호흡기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